

특별기획

# 정읍, 연구용역 추진계획 보고회

## 5대 분야 28개 주요사업 논의... 연구허브·방사선 백신효능평가센터 구축 등



### 부안소방서 '119안전복지

#### 나눔의 날 행사' 실시

부안소방서(서장 강동일) 119안전복지 나눔의 날 행사가 지난 21일 부안군 부안읍 선은마을 경로당에서 펼쳐졌다.

이날 부안소방서 직원과 부안읍 대의소대원 등 총 30명이 참여한 119안전복지 나눔의 날 행사는 전북 소방안전본부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현장맞춤형 안전안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노인복지시설 및 마을주민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점검 등의 서비스를 통해 후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화재를 예방하고자 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다.

특히 이날 부안소방서는 각 가구별 1소화기, 경보기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설치, 전기·가스시설 점검, 기초의약품 및 구급함 설치, 혈압 및 혈당 측정과 같은 기초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기초생활필수품 전달과 청소, 이미용 등 봉사활동을 펼쳐 노인들의 복지와 안전에 구슬땀을 흘렸다.

강동일 부안소방서장은 "119안전복지 서비스 나눔의 날 행사를 통해 어려운 우리 이웃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부안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행사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 정읍시, 정읍시공원 모지정비 주력

정읍시가 2017년 정읍시공원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공원 내 산재된 유원묘의 이장 권고와 함께 무연묘의 연고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새롭게 개장한 정읍시공원 주변 정비와 관련, 2015년부터 정읍시예술회관과 전북과학대 뒤에 산재된 묘지 연고자를 파악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벌여왔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지난 추석명절 전 후로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19기에 대한 연고자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이날 19일 현재 묘지 수는 총 204기(유원묘 179기, 무연묘 115기)로 파악됐으며, 현재까지 유원묘 중 140기(78%)만 이장이 끝난 상태다. 시는 개장지 지연되고 있는 39기에 대해서는 11월 까지 이장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내년에 시민의 컴퓨터와 문화공간 확충을 위해 정읍시공원을 정비해나갈 계획이다"며 "아직까지 개장되지 않은 154기(유원묘 39기, 무연묘 115기)로 인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돼 무연묘 개장이 불가피한 상태"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묘지 연고자들께서 관심을 갖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 사회적기업협의회 행사

정읍시 사회적기업협의회는 지난 20~21일 신내면 농촌실험연구소에서 '2016년 정읍시 4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민나고 쉬이다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정읍시 사회적기업의 직원과 가족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기업 간 상호 소통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물론 나아가 정읍시 사회적기업에 대한 문제점 토론과 직무교육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기본이념인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인식을 높였고,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뤄졌다. 직접 이번 직무교육을 진행한 전북사회적경제포럼 강범석 팀장은 "앞으로도 교육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의 양적인 성장도 물론 질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는 지난 21일 오후 2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정읍 미래비전 연구용역 주요 전략과제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김생기 시장과 양심복 부시장, 국단소장과 소관 부서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정읍 미래비전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5대 전략분야 28개 주요 사업에 대해 부서별로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하고, 질의응답과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비전 슬로건으로 제시된 '자연이 품은 참단도시, 시민이 미소 짓는 활력 정읍'을 중심으로 미래동력, 농업성장, 문화관광, 도시개발, 행복기반 조성 등 5대 전략과제의 분야별 선도 사업들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분야별 주요 전략과제 사업을 보면 미래동력 분야의 중대모델동물 연구허브 구축과 방사선 백신효능평가센터 구축 등 7개 사업, 농업성장 분야의 수출기능의 집적화와 곤충산업화지구 조성 등 5개 사

업이다.

또 문화관광 분야의 정읍중심 브랜드 구축과 풍류문화 디자인마을 조성 등 5개 사업, 도시개발분야의 KTX~내장산 연계 무선충전 전기차 도입과 걷고 싶은 도심 숲 거리 조성 등 5개 사업, 그리고 행복기반조성분야의 정읍 나눔복지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등 6개 사업이다.

김생기 시장은 "정읍의 전국 반나절 생활권을 실현한 KTX시대 개막과 우량기업인 (주)다원시스의 자동차 생산 공장 설립, 내장산 대표관광지 육성, 전북연구개발특구내 3대 국책연구소와 부속 연구기관의 신기술 이전을 통한 기업유치 등 첨단과학산업 발전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정읍 미래비전 발전계획에 근거해서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정읍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시장은 "주요 전략사업들의 재원 마련과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

해 중앙부처와 전북도 국회를 수시로 방문해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전략적으로 국비와 도비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9월부터 현대경제연구원에 의뢰하여 중앙과 지방의 정책 변화, 국내외적 상황 변화와 여건들을 최대한 반영한 5대 분야 28개의 선도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한 바 있다.

시는 미래동력과 농업성장 등의 선도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해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2천642억원을 점진적으로 투입해 나갈 계획이다. 김 시장은 "정읍 미래전략과제 실천계획이 일정대로 추진된다면 전북 서남권 거점도시는 물론 전남북을 대표하는 메가시티로 확대 발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박종환 책임감과 강력한 추진 의지로 새로운 정읍 건설을 위한 주요 전략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보건소는 시민들에게 효과적인 금연거리 안내 및 홍보를 위해 금연거리 노면스티커 및 전신주에 금연표지판을 부착했다.

## 김제시보건소, 금연거리 쾌적한 환경 조성위한 홍보

김제시 보건소(소장 박래만)는 금연도시 실현을 위하여 금연거리(전통시장 사거리에서 중앙초사거리까지)를 지정하고 시민들에게 효과적인 금연거리 안내 및 홍보를 위해 금연거리 노면스티커 및 전신주에 금연표지판을 부착했다.

금연표지판 부착은 금연거리 금연의무에 대한 안내를 통하여 흡연자들에게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예방을 위하여 금연도시 김제로서 유쾌환경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금연거리 지정과 금연거리 안내 표지판 부착으로 금연 환경 분위기가 확대되어 김제시 흡연을 감소와 쾌적한 금연거리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시 보건소는 "금연거리, 금연자율마을을 비롯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으로 선진 금연도시를 일구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으로 함께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김제=곽태기 기자



지적장애인가주시설 사론의집(원장 김금숙)은 최근 충북 단양 일원에서 '가을로 떠나는 시간여행'이라는 주제로 가을 나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 장애인시설 사론의 집 가을나들이

### 30여명 입소인과 종사자들 단양팔경 등 둘러봐

지적장애인가주시설 사론의집(원장 김금숙)은 최근 충북 단양 일원에서 "가을로 떠나는 시간여행"이라는 주제로 가을 나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을 여행을 통해 시설내에서 쌓였던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다양하고 폭넓은 사회경험과 외부활동을 통해 문화적취미를 해소시키고 서로 간 화합을 도모하고자 진행됐다.

30여명의 입소인과 종사자들이 충주호 유람선 탑승 후 단양팔경을 둘러보고 이쿠아티움과 온달관 광지, 대명리조트 등 다양한 지역

문화 체험과 각종 현지음식을 즐기며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만끽하였다. 김금숙 원장은 "평소 답답한 시설에서 벗어나 접하기 어려웠던 자연과 지역문화를 체험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며 참여했던 장애인들의 반응도 매우 좋았다"며 소감을 전했다.

사론의집은 지적장애인가주시설로 현재 20명의 장애인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별 재할·자립 프로그램과 특수학교 통학 및 직업재활시설 취업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활과 사회통합을 돕고 있다. /김제=곽태기 기자

## 부안군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 정명 600주년 기념으로

부안군은 부안 정명 600주년 기념 주간인 오는 27일 오후 2시 부안군청 5층 중회의실과 28일 오후 1시 부안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부안 정명 600주년 기념 인문학 학술대회' 및 '부안 정명 600주년 기념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가 각각 열린다.

'부안의 인물·사상, 그 속에서 부안정신을 찾다'를 주제로 열리는 인문학 학술대회는 김진돈 전북도문화재 전문위원의 사회로 나중우 전주 문화원장과 김병남 국가기록원 학예연구사, 김병기 전북대 교수 등이 부안군민들의 문화·역사적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된다.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는 '부안의

동학 사상과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열리며 신영우 충북대 명예교수의 기초강연에 이어 윤석산 한양대 명예교수, 김철배 입실군청 학예연구사, 노용필 한국사학연구소장, 임형진 경희대 교수 등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신영우 충북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순필 느티나무 서원 대표,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부장, 최인경 최보패리 인문 포럼 대표 등이 종합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학술대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주의와 민족의 자주를 표방한 민중봉기였던 만큼 부안 정명 600주년을 맞아 이 송고한 조상들의 열과 성스러운 충정을 길이 빛내고 부안군민의 희망과 정신을 재조명할 방침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생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없음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생주 GIFT SET**

GIFT SET 1.0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0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0 | 750ml 1ea/12%

GIFT SET 4.0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0 | 375ml 5ea/13%

GIFT SET 6.0 | 500ml 정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7.0 | 375ml 2ea/13%

**부안강산 생주**  
Premium Ochi Wine

TEL : 083-584-9980  
www.gangsanwine.com